

우리 음악 유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진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우리의 음악 유물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전통음악 관련 연구자를 학예연구사로 발탁하여 관련 유물 장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로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경우 나름대로 국악 유물 확충, 보존 및 전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고, 미래에 발생할 음악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국립 음악아카이브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의 음악 유물들은 아직 놓을 곳을 찾지 못해 끈으로 묶여 있는 한 무더기 서류 봉투와 같다. 하루 빨리 제 갈 곳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만 하다.

지난 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단장한 후 재개관을 하였을 때, 국민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무료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람 인파가 끊이지 않은 것은 세계 박물관사를 살펴 보아도, 아마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필자도 버리고 별려서 올 초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참관하게 되었다. 언론 매체에서 하루에 꼼꼼히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바 있으나, 가능한 하루 동안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식사 시간도 얼마 두지 않고, 넓은 공간을 종횡하며 살펴보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모든 유물에 눈 한 번 건네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유물이 가진 깊은 세월의 흔적을 살피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전공과 관련해서 유물을 살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관람이 될까 싶어 필자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해서 살피기 시작했다.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I·II, 기증관으로 되어 있는 상설 전시관에서 전통음악, 더 나아가 전통 공연예술 관련 유물을 찾을 수 있었으나, 미술품으로서 악기를 연주하는 청동 조각상, 통일신라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주악토우상, 그리고 광주 신창리에서 발굴된 현악기 관련 유물의 재현품으로부터 전통음악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우리 전통음악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통일신라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리뷰 | 국악

국립국악원 박물관은 국악교육장?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에 전통음악 유물을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곳으로 국립국악원 박물관이 있다. 전통음악 부분의 유물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우리나라가 전통음악을 중시하고 있는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으로 국립국악원 박물관은 매우 특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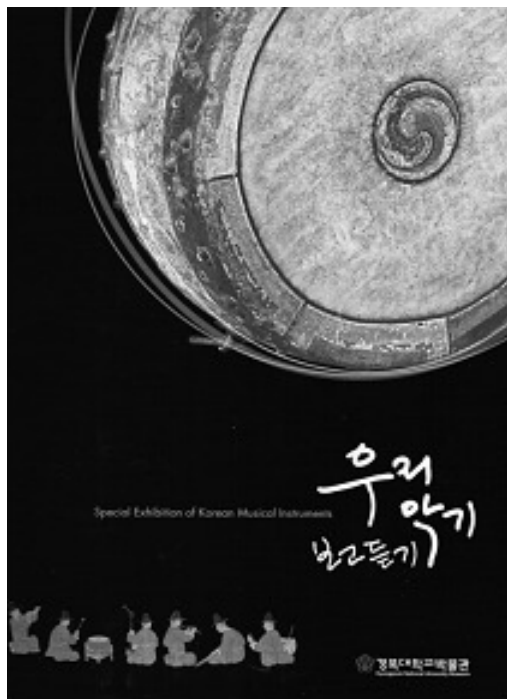
하지만 국악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립국악원 박물관 국악박물관은 우리 음악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악 관련 자료를 전시한 국악의 산 교육장입니다. 국악박물관은 악기와 귀중도서, 음향, 영상자료 등 총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0여 점이 중앙홀을 비롯한 각 전시실에 진열되어 있습니다”라는 국립국악원 박물관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국립국악원 박물관은 ‘국악교육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악박물관이 턱 없는 유물 구입비, 관리비 등으로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 그나마 국립국악원 박물관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국악연구, 국악보급, 국악교육의 발전이 더디어질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국립국악원의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장 소장된 악기 한자리로

지난 해 경북대학교 박물관은 주목할 만한 전시를 계획·개최한 바 있다. <우리 악기 보고듣기>라는 전시였다.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구윤국 교수가 기증한 여러 점의 국악기 소장을 계기로 ‘유적·유물에 보이는 악기’, ‘궁중음악의 악기’, ‘선비음악의 악기’, ‘민속음악의 악기’, ‘불교음악의 악기’, ‘우리 악기의 변신 시도-개량악기’라는 여섯 장르로 구분하여 전시한 우리 악기는 국립중앙박물관, 혹은 국립국악원 박물관에서 다시 한 번 음악 관련 유물들의 중요성을 되

역사적인 음악 유물로서 우리가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음반 유물이다. 음반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것이 역사적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적 음악 유물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음반을 수집하고 보관할 기관 운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전통적인 음악이나 한국인에 의해서 창작된 음악, 그리고 한국 내에서 공연된 해외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할 국립 아카이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경북대학교 박물관 <우리 악기 보고듣기> 전시 도록 표지

새겨 볼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악기 유물, 악보 유물 등등을 한 자리에 모아 보았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전통음악과 관련된 악기 유물들은 악기의 경우를 제외하곤 어느 경우에는 미술품으로 여기 저기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악보의 경우도 인쇄 활자 유물, 도서 등으로 구분되어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제각기 분산되어 소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악보의 경우 중요본이 국립국악원 자료실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으나 원본을 감상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러한 분산 소장에 대해서 언급하면, 우리 악기 유물 혹은 관련 자료들이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해에 필자는 일본 천리대 참고기념관을 방문한 바 있다.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자료실에 통일신라 시기의 횡적 유물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 횡적은 1985년 발간된 예술원 편 『한국음악사』 권오성 교수의 집필 부분에서 도판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이후 한국전통음악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악기 유물이 되었다. 이 유물과 함께 권오성 교수가 소개한 훈 계열의 악기 또한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유물이지만 『한국음악사』에 소개된 이후로 어떠한 연구도 진행된 바 없이 사장된 자료가 되어 버렸다. 『문화예술』(2006년 2월호)에 필자가 소개한 바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고 기증한 여러 점의 악기 유물들도 해외에서 우리가 다시 발굴해야 할 유물들인 것이다.

국립 음악아카이브 설립해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 전통음악과 관련된 유물들을 발굴해야 한다면, 국내에서도 다량의 전통음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1980년대 후반 이후 필자는 한국 통소 음악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다닌 바 있다. 여러 지역의 골동품점을 돌거나 수집가를 만



천리대 참고기념관 소장 통일신라시대
횡적(필자 촬영)

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국립국악원 관악기 연주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음정관계를 가지는 단소나 통소가 많이 보인다. 이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단소나 통소의 재료가 되는 대나무가 어떻게 변색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 전통음악의 음정 관계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들 악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인 음악 유물로서 우리가 더 비중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음반 유물이다. 음반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것이 역사

리뷰 | 국악

적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적 음악 유물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음반을 수집하고 보관할 기관 운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인 노재명 관장이 운영하는 한국음반박물관이 한국전통음악 부분의 음반을 수집 정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고, 한국 전통적인 음악이나 한국인에 의해서 창작된 음악, 그리고 한국 내에서 공연된 해외의 음악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할 국립 아카이브가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이쯤해서 우리의 음악 관련 유물을 한번 정리해 보자. 앞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악기 유물이 있다. 그리고 악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음악을 담고 있는 음반이 있다. 음반은 대한제국기에 녹음된 원통형 유성기음반,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매된 원반형 유성기음반이 있을 것이며, 일제강점기와 함께 발매된 여러 상표의 유성기음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연 포스터, 프로그램, 티켓, 신문 광고, 방송된 텔레이프, 개인 녹음 텔레이프, 음악인 육필 원고, 음악논문자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음악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미술품 또한 매우 중요한 음악 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악 유물을 음악 장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통음악, 서양음악, 현대음악, 유행음악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가 보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떤 음악 유물을 수집, 보관, 정리해야 할까. 국립국악원에서는 어떠한 유물을 수집, 보관, 정리해야 할까. 유행음악의 음반은 어느 기관이 담당해서 수집, 소장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음악 유물 보호·관리 정책 시급

최근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유산 12건을 문화재로 등록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재청이 역사적,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근대 문화유산을 계속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

문일 것이다. 한민족이 걸어온 역사적인 흔적을 보존하고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스카라 극장이 제도가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는 이러한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빨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안다.

음악 분야에서도 근대성을 가지는 유물에 대한 마땅한 보존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최고 명창의 소리가 담겨진 음반이 국가로부터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로 지정 혹은 인정받은 경우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실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들까지를 포함하는 우리의 음악 유물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해외에 있는 유물도 빠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음악 유물은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미술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그리고 고악보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립국악원 자료실에서 구입, 소장할 수 있다.

유산 국립중앙박물관이 상설관을 고고관, 역사관, 미술관 I · II, 기증관으로 나누고 특별전시를 따로 하는 지금의 체제로는 음악 유물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에게만 미술품과 같은 대우로 음악 유물을 보존, 정리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전통음악 관련 연구자를 학예 연구사로 발탁하여 관련 유물 정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자세로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의 경우 또한 나름대로 국악 유물 확충, 보존 및 전시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고, 미래에 발생할 음악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국립 음악아카이브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오늘날 우리의 음악 유물들은 아직 놓을 곳을 찾지 못해 끈으로 묶여 있는 한 무더기 서류 뭉치와 같다. 하루 빨리 제갈 곳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만 하다. 